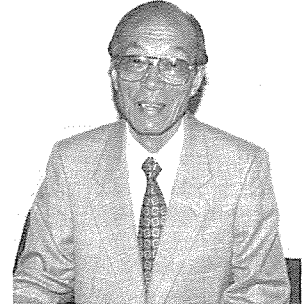


한국민족의학연구소 설립을 제의한다

盧正祐

〈美하와이주 동방의학대학장/성화당 진료소 원장〉



다가오는 21세기는 새로운 동양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세계지성과 석학들의 한결같은 예측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되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과학기술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심지어 의·식·주의 생활양식까지도 통합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한국 창조라는 기치아래 탄생한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민족중흥의 여러 정책은 모든 분야의 의욕을 고무시키고 있다.

현시점에서 과학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문화속에서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민족문화의 중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와 역사의 건설로 과학진흥의 비약이 우리가 당면한 민족적 과업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서 연구지원을

동양의학은 2~3천여년에 걸쳐 인체 실험을 토대로 한 과학성이 탁월한 치료의학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학은 미

래의 의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간직하고도 아직껏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간직한 의문화재(醫文化財)인 사상(四象)의학은 누구에게나 그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한 문화정책의 빈곤으로 50여년을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의학의 씨앗은 대륙에서 비롯한 것이나 그 개화와 결실은 우리 선열들의 각고의 노력과 우리 민족의 천재적 재질로써 재창조되어 새로운 의학의 원천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인 세종대의 의방유취(醫方類聚), 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舍岩의 오행침법(五行鍼法), 李濟馬의 사상(체질)의학 등은 동양의학의 정수를 뽑은 주옥같은 내용의 우위성과 임상기술면에서 동양 삼국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분석위주의 치료방법에서 벗어나 전체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동의학에서 장점을 찾을때 결국에는 모든 질병이 그 체질과 음식의

필자는 대한민국 한의학 제1호 박사로서 서울 경희의료원 초대한방병원장(71~76년)을 역임했으며 76년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현재 중국계 동방의학대학장 및 한방내과 성화당 진료소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불기분의 상관성에 도달하게 되어 고전의학인 우리의 사상(체질)의학이 인류가 갖는 많은 체질개념 중 가장 실증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논리가 철학과 실증에 입각한 것으로 과학적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계와 세인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동서의학은 각기 지역적·문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서로 상반되어 있어 서양의학은 예방의학 및 외과학적으로 우수한 반면 내과치료와 보건양생(養生)의 개인 건강관리법은 동양의학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학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사상(체질)의학의 체질감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책이 요청된다.

둘째, 국민의 체력이 곧 국력이란 개념하에 서양의학과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식·주와 생활습성 등을 비롯한 체력 관리상의 연구와 거시적인 정책의 확립이 시급하다.

셋째, 동서의학의 두 제도가 병존한 가운데 우리 실정에 알맞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및 생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료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四象의학의 우수성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면서부터 네가지형의 체질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체질의 차이는 각 장기의 대소강약과 상호균형에 따라 구분하여 간장형인 태양인, 호흡기와 심장형인 태음인, 위장형인 소음인, 신장형인 소양인으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의 생김새와 거동, 식성, 심리상태까지도 체질요인에 좌우한다고 보는 합일(合一)적인 참신한 의학사상이 바로 사상(체질)의학이다.

사람마다 독특한 체질생리와 병리 및 약리설이 있어 동일 질병에도 처방이 달라야 하고 그 체질에 맞는 약의 구별이 생기며 심지어는 성격의 구성까지도 체질적 요소가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도 체질의학설에 따른 여러 학설이 있으나 아직 임상적으로

학리적 근거를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고대 희랍의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四體液說)은 오로지 소박한 생리병설에 그친 것이지만 사상의학은 실지 임상에서 질병치료로 구체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이론과 치료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일치되고 있다.

또한 사상의학은 이론과 실증에서 합일된 논증을 갖고 있고 임상에서 과학적 요소와 실용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차 신진 과학도들이 이 분야의 연구와 계획으로 발전시킨다면 치료의학적 또는 임상약리는 물론 영양학과 예방의학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성격, 심리학, 직업적성검사 등 각 분야에 획기적인 진전과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진진하면 사상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독보적이고 주체성 있는 의학의 체계적인 수립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사상의학의 배태는 멀리 고려말기로부터 이조초에 걸쳐 이미 싹텄다. 대륙에만 의존해 온 외래의학을 지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체계를 지향하여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유취를 비롯하여 후에 허준의 동의보감을 국가적 사업의 하나로 간행까지 본 것이다. 고려말 자주적인 민족적 과업으로 기획했던 것이 의학적 전통과 학문 및 본질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조말에 의학사상 전무후무한 사상(四象)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 근세 의학의 총결산인 동시에 동양의학의 정수이나 환골탈태(換骨脫胎)의 사상의학이 기성의학의 관념에서 불때 혁명적

이요, 폭탄적인 학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 이단으로 지탄을 받아 백안시해 온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도 고대 사체액설을 비롯하여 혈액형에 의한 분류는 임상상 실효와 범의학적 가치 및 심리학에 미친 영향과 공효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무기력 체질, 삼출성(滲出性) 체질, 선병질(腺病質), 특이체질, 각종의 알레르기성 체질 등 그 분류는 수없이 많으나 원칙과 주관성이 없어, 체질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극히 모호하고 박약한 것이다.

사상의학은 논리체계가 철학적 근거에 두고 있어 의학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우주사라만상을 모두 사상논리로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고, 그의 일부로 의학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기성 한의학이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기초위에 수립된 것은 틀림없으나 사상의학은 한결을 더 나아가 오히려 정신적 기초위에 육체도 형성되며 따라서 그 지배하에 머물고 체질과 기질 및 성격심리와 질병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안정과 인격의 완성은 곧 인류사회의 모든 질병을 근절시키는 가장 기본적 요체가 된다고 설파한 것은 의학사상 최초의 일이며 인류구원의 이상을 내세운 것이다. 만병의 근원이 심성, 곧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 이제마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윤리의학을 주창한 것이다.

제3의 醫學 탄생 기대

오늘날 과학기술은 날로 전문화·세

분화되기 때문에 의학에서도 극히 국부적이며 미시적인 나머지 생명체를 다루는 하나의 의학으로서의 획적인 연관성이나 전인(全人)으로 종합성과 통일성이 결여되는 폐단과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오늘날의 현대의학은 화학요법 및 항생물질의 출현과 고도로 발달한 예방의학으로 그 정교한 외과기술의 발달이 내과분야에까지 침범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과학기술의 발달에 견주어 볼때 우주를 정복한 과학의 위력이 5~6척박에 안되는 인간의 내과치료를 있어서는 아직도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내과영역에서 병리학적으로 원인이 구명되지 않은 질병이 수없이 많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군을 비롯하여 류머티즘, 천식, 정신과 질환, 신경통, 암, 당뇨병 등의 대사병과 심장 및 순환기 질환, 하기뇌염, 알레르기성 질환, 만성피부염, 체력의 저하에 따른 만성질환에 관하여는 거의 속수무책에 가까우며 병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대병치료의 장벽을 극복하는데 있어 선진 구미각국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진로를 동양의학에서 찾아보려는 차체에 선대가 이룩한 넓은 한국의학의 흐름속에서 온고지신의 의의를 살려 새로운 의학의 소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그 방면에 종사하는 이들의 문화적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시대적 임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욱이 세계의학의 일환으로서의 참

여는 둘째치고 미래의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문화(醫文化)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역사적 사명감은 중차대함을 통감하고 있다.

필자는 해방후 오늘의 의학을 전환기의 의학 또는 동서의학의 접촉기라고 보고 있다. 서양의학이 전래된지 1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는 동서의료의 두 제도가 병존해 가며 반목과 대립의 지속에서도 이제는 상호이해와 교류가 싹트기 시작하여 심지어 일반 의과대학에서 한의학강좌가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동서의학의 융합과 제휴 내지 보완장단이란 하나의 시대적 추세이며 피할 수 없는 학문적 숙명이자 사회적 요청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동서의학은 학문의 성격과 차이로 보더라도 상호보완 절충하기에 알맞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은 현재가 부흥 정리기인 동시에 동서의학의 접촉기에 처해 있으므로 점차 이 기운이 성숙하게 되어 앞으로 동서의학이 접촉을 넘어서 합체의학 수립기에 접어들게 되리라고 본다.

새로운 제3의 의학의 모색은 이미 구미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그의 주도적 역할과 한의학의 과학적 정리와 새로운 세계의학의 구상은 어디까지나 동양문명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양적 사유와 간직된 탁월한 의학적 전통과 민족적 재질로써 개발해 나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 있더라도

한가지 사상(체질)의학의 과학적 체질감별의 구명만이 그 관건이 되어 있어 이에 정책적 뒷받침을 정부가 하지 않는 한 모두가 하나의 헛된 꿈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거듭 호소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국가시책면에서 선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가적 연구기관으로 한 국민족의 학연구소의 건립, 2) 동서의학이 융합된 제3의 의학을 창출하여 국내에서의 의료제도의 일원화, 3) 암, 중풍, 성인병, 정신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연구병원의 개설, 4) 우수한 한 의사 및 학자를 육성하여 외국에 문화사절로 파견, 5) 국민 전체의 체력관리(특히 초·중고 및 대학생)를 위한 연구계몽지도 및 기관지 발간, 6)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대학원의 개설, 7) 해외 의료기술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단기강좌 개설

모든 질병이 체질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 차체에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사상(체질)의학을 주축으로 하여 동서의학이 제휴하여 새로운 민족의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은 과학을 능가하고 초월한 곳에서 새로운 철학적 인식으로 생명을 이해하고 질병을 구명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의학사상이 모색되어 새로운 제3의 의학이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